

장소 만들기의 정치학과 스토리텔링: 용산 관련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김영옥*

〈국문초록〉

2008년 시청 앞 촛불집회에 간 사람들이 왜 2009년 용산 투쟁에는 오지 않는가. 이것은 시청 앞 광장과 용산이라는 두 개의 정치적·역사적 장소를 비교하면서 동시에 사유하고자 노력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이었다. 본 연구는 2009년 1월 20일 망루의 ‘참사’가 일어난 이후 현재까지 생산된 ‘용산 철거민 투쟁’ 관련 독립다큐멘터리들을 일종의 모자이크-이야기로 살펴보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 독립다큐멘터리가 제공하는 재현은 역사 기억하기 혹은 기록하기의 관점에서 극영화와는 다른 중요한 성찰의 지점들을 제공한다. 재현하는 사람과 대상 간의 관계성에 특별히 윤리적으로, 혹은 미학-정치적으로 주목하는 독립다큐멘터리는 기억 혹은 기록의 불/가능성에 대한 치열한 질문의 과정을 포함한다. 용산의 경우 이러한 다큐멘터리의 특성은 더욱 다양한 모습을 제시한다.

지구화의 은유 속에서 ‘공간’이 초국적 자본 및 엘리트 유목민의 무한한 자유를 핵심 내용으로 한 세계정치경제의 거대구조를 가리킨다면, ‘장소’는 그러한 자유에 기반을 둔 무책임한 이동이 낳은 결과를 고스란히 떠안는 지역/민의 미시구조를 가리킨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소는 종종 본질화되거나 ‘여성화’된다. 본 논문은 공간과 장소의 젠더화된 의미망을 검토하면서 용산의 예를 통해 장소-만들기의 정치학이 어떤 점에서 젠더적 관점을 함축하는지, 본질화의 위험을 벗어나는 장소-만들기는 어떻게 가능한지 또한 살핀다.

주제어: 용산 철거민 투쟁, 독립다큐멘터리, 공간, 장소/성, 스토리텔링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객원연구위원. daimon32@hanmail.net

『젠더와 문화』 제5권 1호(2012) pp. 145-183

© 2012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들어가는 말

(균질적이고 공허한 시간의 흐름에 지나지 않는) “역사의 연속체를 폭파한다는 의식은 행동하는 순간 혁명적 계급들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대혁명은 새로운 달력을 도입하였다. 달력이 시작되는 날은 역사적 저속 촬영기로 기능한다. 회상의 날들인 공휴일의 형태로 늘 다시 돌아오는 날도 근본적으로 그와 같은 날이다. 그러니까 달력들은 시간을 시계처럼 세지 않는다. 달력들은 역사의식의 기념비들인 … 것이다(Benjamin, 1978: 701-702).”

2009년 1월 20일은 한국사회 역사에서 ‘기념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용산 망루 ‘참사’의 현장을 하루하루 기록한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감독: 장호경, 2011)의 매 장면 오른쪽 하단에는 1월 20일을 기점으로 이후 흘러간 날들이 숫자로 적혀있다. 우리가 무심하게 ‘달력’에서 확인하는 많은 기념일들. 이 날들은 균질적이고 공허한 시간에 지나지 않는 역사의 난간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회상의 달력을 만들고 있는 날들이다. ‘용산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용산 ‘참사’로 통상 지칭되었던 이 사건을 역사로 만드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신자유주의적 국가체제는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정치적 자유와 법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용산참사는 명백히 보여주었다. 소유권은 없는 채 거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바로 그 거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망루를 쌓고 투쟁한 이들 철거민들의 행동은 비합법적이며 따라서 법의 외부에 위치한다. 자신들도 모르게 ‘국가없음’의 상태, 혹은 ‘예외상태’에 빠져버린 이들은 국가를 향한 자신들의 보호 요청이나 거주권 요청이 자신들을 불법자로 만드는 상황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¹⁾

1) 다큐멘터리 「마이스윗홈 - 국가는 폭력이다」 (감독: 김청승, 2011)에서 철거민 김창수는 ‘나는 내가 국민인줄 알고 투쟁했는데 국가는 나를 범죄자라고 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상세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용산 제4철거구역에서 장시간 지속되었던 세입자 철거민들의 투쟁은 거의 필연적으로 촛불집회와 비교되곤 하였다. 시청 앞 광장과 용산 ‘참사’의 현장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문화가 팽배한 한국사회의 현실을 가리키는 두 개의 상징적 장소로 인식되면서 계급 간 갈등의 심화 및 신자유주의적 국가체제의 관료주의적 통치성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켰다. 왜 시청 앞 촛불집회에 가는 사람들이 용산에는 오지 않는가, 이것은 두 장소를 비교하면서 동시에 사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이었다. 이러한 질문은 결과적으로 촛불집회를 중산층 소비자-시민들이 벌인 ‘저들만의 축제’로 평가하고 용산 투쟁을 소외된 비국민들의 고독한 싸움으로 간주하는 이분법적 사고로 귀결되면서 깊은 패배감과 자괴감을 낳았다(백승욱, 2009; 은수미, 2009).

2008년의 촛불집회나 2009년의 용산철거민 참사는 모두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흐름 속에서 위험 사회의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를 공유하고 있었다. 직접적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은 용산 철거민들의 저항이 자본과, 국민의 기본권은 무시한 채 바로 그 자본의 ‘자유’만 보장하는 국가에 대한 항거였다면,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촉발한 촛불집회 또한 궁극적으로는 재분배나 인정 등 사회정의를 향한 국민의 소망에는 귀를 막은 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관리인 노릇만 하는 권위적인 국가에 대한 항거였다(Kim, 2010). 촛불집회 역시 점점 더 위협해지는 사회에서 과연 안전한 국민/시민은 누구인지, 안전 논의에서조차 철저하게 배제된 비국민, 비시민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지만 당장 용산에서 비국민이 되어 ‘텅 빈 생명(homo sacer)’을 살게 된 사람들과의(Agamben, 2002) 직접적인 연대에게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촛불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대부분 잠재적 피해자로서의 당사자성에 입각해 행동했다면 용산 철거민들은 위협과 위협의 한가운데에서, 즉 ‘예외상황’의 한 가운데에서

삶의 가능성을 외쳤던 당사자들이었다. 전 지구적으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글로벌 위험사회에서 살고 있으며(백, 2011), 글로벌한 차원에서 상호의존적 실존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학자들은 말한다(기든스, 1997).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한 '의식'이 발로 현장을 찾아나서는 실천과 운동의 차원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의식과 의식의 실현 사이에 놓인 이 거리는 촛불집회와 용산 철거민 참사 사이에 가로 놓였던 그 간극과 조용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나는 2012년 현재 용산과 관련해 그동안 생산된 독립다큐멘터리들을 일종의 모자이크 혹은 퀼트로 보면서 용산참사를 기억하는 방식이 패배감이나 자괴감일수만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한 태도는 오히려 역사적 장소로서의 용산을 생성과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일회성 사건으로 박제화시켜 유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선 2009년 1월 20일 이후 용산이라는 '장소'를 함께 만들어나간 사람들이 실제로 적지 않았고 또한 다양했으며, 용산이라는 '장소'는 단지 용산 '참사'로만 의미화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 글이 주로 참조하는 용산 관련 다큐멘터리의 생산 과정 자체에서만도 우리는 어떤 역사적 공동체의 형성 기운을 느낄 수 있다. 용산 관련 다큐멘터리를 만든 사람들은 상호 참조적 미디어 활동가/성을 발휘하며 용산 철거/민문제 혹은 상황을 기록했다. 더 나아가 그곳에서 기존의 주민과 다른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철거 반대 및 반-빈곤 활동가들과 함께 나름의 방식으로 '생활'하며 용산(철거)4구의 장소/성을 만들어 나갔다. 용산4구로 간 이 미디어 활동가들은 이미 대추리 등에서 장소밀착 활동의 경험을 쌓았고, 그 경험은 용산에서의 장소 투쟁 기록 작업이 투쟁 안으로의 적극적 개입이 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했다.

독립다큐멘터리가 보여주는 재현은 재현의 정치학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정교하고 유용한 성찰들을 제공한다. 재현하는 사람과 대상 간의 권

력적 관계성에 특별히 윤리적으로, 혹은 미학-정치적으로 주목하는 독립다큐멘터리의 특성은 용산의 경우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오랜 시간 한 장소에서 그 장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목숨을 건 투쟁을 계속한 사람들, 바로 그러한 투쟁을 통해서 스스로에게는 체화된 ‘주민 의식’을 그리고 그 장소에는 특별한 문화적 정체성 즉 ‘장소성’을 부여할 수 있었던 당사자들에 대한 기록으로서 ‘용산’ 다큐멘터리들은 한편으로는 장소/성과 장소/성 상실 혹은 복원에 대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천으로서의 기록과 기억에 대해 다각도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본 연구는 2009년 1월 20일 이후 현재까지 생산된 용산 관련 다큐멘터리들을 최근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장소/성 상실 및 장소만들기의 정치학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다큐멘터리 스토리텔링’이라는 미학적 축과 ‘장소 투쟁’이라는 정치철학적 축이 중요한 분석적 맥락이 되어 줄 것이다.

2. 공간과 장소

1) ‘지구화’라는 은유와 공간, 그리고 장소

지구화는 우리가 지난 10 여 년간 가장 많이 들어온 말 중의 하나다. 지구화의 담론 속에서 지구화는 이동성과 거의 같은 말로 사용된다. 세계는 불균등 발전에 따라 분리되고, 국가 역시 경제적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갈라지지만, 초국적 자본과 소비욕망은 이러한 분리 너머로 ‘하나의 지구’라는 공간적 은유를 만들어 낸다. 이질적 장소에서 동시에 생산되는 동질적 욕망은 지구화를 이동성과 동일한 의미에서 이해하는 사고방식과 함께 ‘지구화의 울퉁불퉁한 광경’을 은폐시킨다(블레이,

2009). 상층회로로 움직이는 엘리트 유목민들과 초국적 자본이 만들어내는 ‘평평한 지구’라는 공간적 은유는 그러한 지구화에 의해 식민화되는 지역으로서의 장소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다.

후기자본주의에 관한 지배적 담론에서 ‘지구적’ 사회과정과 ‘지역적’ 사회과정은 이분법적인 대립 방식 속에서 지역적 문화와 지구적 경제 변형이라는, 서로 배타적이고 본질적으로 적대적인 틀로 설명되었다(Harvey, 1989; Castells, 1997). 이러한 이분법적 틀에서 지구-지역이라는 두 항은 보편적-특수적, 경제적-문화적 이분법과 등가를 이루게 된다. 즉 ‘지구화’라는 거대 서사는 역사의 역동적 흐름과 경제적 추동력으로서 보편적 위상을 띠게 되고, 지역은 문화적 의미의 생산을 통해 이에 저항한다. 지역/적인 것과 지구/적인 것의 이러한 이분법적 설명 방식은 그러나 지역/적인 것에 대한 국소적 관점으로 수렴되기 쉽다. 예를 들어 지리적 유물론자 하비(David Harvey)는 지역에서 ‘국소적으로’ 발생하는 대항 행위들은 지구적 차원의 구조는 해체하지 못한 채 지역적 행위성의 자기만족에 빠질 위험이 많다고 경고한다(Harvey, 1989). 그의 논의에서 여성과 민족, 소수자 등의 하위주체들을 포함하는 노동자의 영역으로서 장소는 결과적으로 지구화의 ‘타자’로 구성된다(Escobar, 2001; 스미스, 2010). 하비의 이러한 입장은 지구적 거대 서사에 집중함으로써(지역 차원에서 나타나는) 행위성이나 상황의 우연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거나(스미스, 2010), 자본과 생산의 환원주의라는 비판을 받는다(Dirlik, 2001).

지구적인 것과의 기호학적 병치를 통해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장소와 지역적인 것을 사유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은 장소의 참조적, 즉 체현된 경험적 지식을 환기하는 데서 출발한다. 장소는 상황적이고 관계적인 공간, 즉 집단 및 개인 간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구축된 지역들이다. 르페브르(Henri Lefebvre)는 장소를 살아낸, 착지된 공간,

다양한 문화적 정치 형태들의 위치로 설명한다. 장소는 근본적으로 질적이고 유동적이며 역동적인 것이다(Lefebvre, 1990). 상품의 지리학적 등가물인 공간과 달리 장소는 사회적 산물이면서 동시에 자연적인 국면을 지니는 것이다. 그러나 장소를 불변의 것으로 상정하면서 잃어버린 과거(전근대)에 대한 향수의 표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사회-공간적인 관계의 실천이 장소를 규정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실천들은 권력과 배제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구성되고 유지되며 또한 변화하는 여러 경계들을 품고 있으며, 상호 교차하거나 중첩되는 장소들을 낳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헤게모니에 대한 저항 전략으로서 장소 개념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장소를 ‘프로젝트’로서 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고정된 독립체로서가 아니라 과정으로, 다시 말해 그 특수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다면적인 사회관계를 통해 구성된 것으로서 장소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장소/성: 공동체적 경험의 공유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물리적 외관, 즉 어떤 장소의 경관일 수 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장소의 지속성을 인식하는 것, 혹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의 존재가 알려져 있는 곳,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여기**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한 장소에 뿌리를 내리고 그 곳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장소가 진정으로 우리의 **집**이라면, 이 모든 측면들이 의미심장하면서도 분리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런 집이라는 장소는 사실 인간 존재의 토대이며 모든 인간활동에 대한 맥락뿐 아니라 개인과 집단에 대한 안전과 정체성을 제공한다(렐프, 2008: 100).²⁾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의 이 문장은 장소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2) 에드워드 렐프의 인용에 나오는 모든 강조는 원 저자에 의한 것임.

정리해 주고 있다. 현상학은 ‘의식은 항상 무언가에 대한 의식’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우리의 행동과 생각은 항상 무언가의 관점에서, 무언가의 지평 하에서 이루어진다. 장소는 바로 이러한 행위와 의도의 중심으로서 우리가 ‘실존의 의미 있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초점’이다. 장소의 정체성은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행위/자에 영향을 끼치고, 사건과 행위를 만드는 주체들의 정체성은 또한 장소의 정체성에 영향을 끼친다. 삶을 비로소 의미 있게 만드는 경험은 장소와 장소귀속성 간의 이러한 상호구성적 역학 속에서 발생한다. 이 상호구성적 역학은 무엇보다도 이야기를 들려주고 듣는 상호행위를 가리킨다. ‘이야기/꾼의 속성’에 관한 벤야민의 성찰은 ‘경험’의 관점에서, 아니 ‘경험의 전승’이라는 관점에서 장소를 사유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벤야민은 전근대적 언어행위로서의 ‘이야기하기’와 근대적 언어행위로서의 ‘소설’을 비교하면서 이것을 특히 경험의 풍요로움 혹은 빈곤과 연관시킨다. 그는 제대로 이야기를 들려줄 줄 아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을 진단하면서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으로 여겨지던 어떤 능력” 즉, “경험을 나눌 줄 아는 능력”이 박탈당하고 있음을 이쉬워한다. 경험을 나누는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경험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경험은 유통 가치가 떨어졌고, 그것은 1914 - 18년 사이 세계사적으로 끔찍한 경험들 중의 하나를 겪었던 세대에게 일어난 일이다. … 그 당시 사람들이 전장에서 말없이 돌아오는 모습을 똑똑히 보지 않았던가? 전달 가능한 경험을 풍부하게 갖고 온 것이 아니라 그럴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로 돌아온 그들을? 10년 뒤 전쟁소설들의 홍수 속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입에서 귀로 흘러가는 경험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 왜냐하면 전략적 경험이 진지 전쟁에 의해, 경제적 경험이 인플레이션에 의해, 그리고 육체적 경험이 배고픔에 의해, 윤리적 경험이 권력자들에게 의해 이처럼 철저하게 허위였음이 입증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아직 마차를 타고

학교에 다니던 그 세대는 맨 하늘 아래, 구름 말고는 변치 않고 남겨진 것이 하나도 없는 풍경 속에 서 있고, 그 가운데에 파괴적인 흐름들과 폭발들의 역장(力場) 속에 왜소하고 부서지기 쉬운 인간의 몸뚱이가 있다(벤야민, 2008a: 173).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람들을 덮친 이 빈곤은 사적인 차원과 시대적 차원을 동시에 지닌다. 벤야민은 제1차 세계대전을 예로 들어 경험의 빈곤화 현상을 기술하고 있지만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지구화가 가져 온 압축적 공간, 신자유주의적 통치전략 등으로 이어지는 역사세계의 흐름은 경험의 빈곤이 극단으로 치닫는 과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점점 더 많은 부가 형성되었다 해도, 그 부의 분배는 지구적 차원에서, 혹은 국민국가 내부의 지역적 차원에서 사회적 정의와는 무관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사람들이 전달할 가치가 있는 경험은 한층 더 빈곤해진다. 그리고 용산 철거민 참사가 극명하게 보여주었듯이 신자유주의적 세계체제 속에서 관료적 통치성에 만족하게 된 법치국가 가 법의 이름으로 행하는 다양한 경제적·물리적 폭력들은 어렴풋이 존재하던 장소/성들에 이율배반적인 효과들을 발생시킨다. “파괴적인 흐름들과 폭발들의 역장(力場) 속에” 놓인 “왜소하고 부서지기 쉬운 인간의 몸뚱이”들은 역설적이게도 그 몸 하나로 전지전능한 역능을 발휘해야 할 당위성에 직면하게 되거나(김소영, 2011), 폭력이 짓밟고 간 폐허 위에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는 (혹은 해야만 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 세우기 프로젝트는 ‘이야기/하기’와 관련된다. 이것은 장소에 심리적 애착이 가도록, 그 장소가 삶의 실체가 빠져버린 공허한 물리적·형식적 공간이 아닌 장소성을 지닌 곳이 될 수 있도록 삶을 재조직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소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듣는 공동체로 존재한다. 공동체라는 것은 경험이 전승되는 장소와 그곳에서의 삶과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경험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때,

이어말하기를 통해 전과될 때 비로소 경험으로 남겨지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가장 뛰어난, 가장 오래된 기억의 방식이다(웅, 1995). 한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에 연결되고 그렇게 이야기들이 모여 마지막에 이루어내는 그물망은 개인에게 가장 큰 충격인 죽음조차도 그 어떤 장애나 충격이 되지 않는 기억의 퀵트가 된다. 죽음의 폭력과 화해할 수 있는 힘은 오로지 기억에서만 가능하다. 속도가 아닌 지속으로서의 시간성과 영원성이야말로 이야기의 기원이다. 이야기의 전승 속에서 죽음은 폭력적인 단절이 아니라 자연사(自然史)의 흐름에, 영원성에 섞여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죽음은 이야기꾼이 보고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인준”(Benjamin, 1977: 450)이라고 벤야민은 말한다. “한 때 죽는다는 것은 각 개인의 삶에서 공적인 과정이었고 또 가장 전범적인 과정”이었다. 제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도 죽음의 순간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조언이 있다. 진리의 서사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는 그가 살아온 삶에서 떠오른 것이며, 이 지혜가 그에게 권위를 부여한다. 살아낸 삶이야말로 입에서 입으로 전수되는, 증여되는 지혜다. 그러나 오늘날 시민들은 “한 번도 죽음을 접한 적이 없는 공간, 즉 영원성이 거주하지 않는 일시적 삶의 공간에 살고 있다(Benjamin, 1977: 449).”

1장에서 언급했듯이 용산참사는 거의 필연적으로 시청 앞 촛불 집회와 비교되곤 했다. 시청 앞 촛불집회에 동참한 시민들이 왜 용산참사 현장에는 오지 않는가? - 이 질문에 대해 김진호(2009)는 ‘사회현상에 대한 해석의 권리를 획득한 시민사회 발화자들’인 촛불집회 참여자들에게 ‘축제 없는 투쟁’은 너무 구태의연하고, 생존권을 위해 건물 망루에서 투쟁하다 불타 죽은 철거민의 그 ‘불타는 몸’은 너무 강렬하고 너무 진지하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을 우리는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죽음이 철저하게 사라진 공간, 영원성이 거주하지 않는 일시적 공간에서만 사는데 익숙한 시민들에게 소위 사적 공간인 ‘집 안’도

아니고 사적 공간을 대신하는 ‘병실’도 아닌 사회 공간 한가운데서, 사람들과 미디어가 목도하는 현장에서 ‘불타는 몸’은 너무나 강렬하게 죽음의 맨 얼굴을 폭로하고 있어서 그 갑작스런 실재계의 침입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다음에서 나는 용산참사 혹은 철거민 투쟁을 기록한 4편의 다큐멘터리를 ‘장소 투쟁’의 관점에서 살피고자 한다.

3. ‘용산’을 재현하기: 기록과 기억 사이, 혹은 이야기하기

우리는 ‘예외사태(Ausnahmestand)’속에서 살고 있다. 억압받는 사람들의 전통은 이러한 예외상태가 상례임을 가르쳐준다. 우리는 이에 상응하는 역사의 개념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예외상태를 도래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Benjamin, 1977: 336-337).

지구화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경제주의적 관점은 글로벌 시대를 거점으로 삼음으로써 초국적 기업의 지배와 그에 공모하는 국민국가의 역할을 어느 정도 당연한 것으로 만든다. 공간적 스케일과 담론적 실천 사이의 이러한 상호작용은 결과적으로 현재의 세계와 지역적 변화에 대한 방관적 태도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2009년 용산에서 있었던 참사와 철거민 투쟁은 국민국가의 이러한 태도 속에서 발생했다. ‘선대책 후개발, 순환식 개발’을 향한 세입자들의 요구를 특공대 진압을 통한 강제 철거로 대응함으로써 6명의 사망자를 내고 철거민들을 1년이 넘도록 예외상태로 내몬 용산 ‘사건’은 사건 당시부터 이후 3년에 이르도록 다양한 형태의 영상 기록물을 낳았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용산참사 및 철거민 투쟁이 결코 일회적으로 발생하고 사라진, 즉 즉각적인 정보 보도로 처리가 완료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효과와 그로 인한 변화 속에

서 여전히 진행 중인 ‘삶’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용산 관련 디큐멘터리는 역사기술의 한 방식으로서 기록의 의미를 되새기며 기록을 통한 기억이 지향하고 도달할 수 있는 지평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제안’하게 만든다.

1) 용산은 어떤 곳인가?

‘용산’의 장소/성을 사유하기 - 이것은 용산이라는 지역의 현재를 역사성 속에서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 용산에서는 철거민 참사가 일어났고, 오랜 시간 성관매를 해왔던 여성들의 일상과 노동이 새겨져 있고³⁾, 용산역에서 기차를 타거나 내리던 무수한 군인들이 체현하는 한국군사문화의 강한 기류가 흐른다. 영화 「화차」가 보여주듯이 용산역은 신자유시대 화폐경제체제에 순조롭게 편입되지 못한 사람들의 숨가쁜 도주와 스쳐 지나감의 지구지역적 차원을 체현한다.

용산은 장소이면서 공간인 지역의 정체성을 사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용산 관련 디큐들을 보면서 새삼 확인하게 되는 몇몇 사실들은 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장소/성과 공간/성의 중첩 속에서 구성된다는 인식과 관련된다. 지리적으로 이웃하면서 식당 등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들은 철거라는 폭력적 상황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대부분 서로 관계-없는 사람들로 살아왔다. 거래와 상호작용이 익명의 개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대사회에서의 장소들, 예컨대 공항 같은 곳을 비장소라고 하지만 ‘용산’의 경우가 보여주듯이 점점 더 증가하는 장소귀속성의 상실은 많은 ‘장소들’을 비장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곳으로 만든다. 오히려 그들은 2009년 1월 20일 이후로 긴 투쟁의

3) 용산 투쟁의 담론에서 늘 이 ‘언니들’의 이야기가 생략되는 것의 문제점을 켄 더칭지의 관점에서 함께 토론해준 김주희에게 감사한다.

시간을 함께 살아내면서 서로를 동네 주민으로 인식하고 ‘서로를 마주함에 있어’ 장소에 대해 그리고 서로에 대해 일종의 소속감을 얻기 시작한다. 어떤 장소에 귀속된다고 하는 소속감은 상호주관적인 느낌이다. 이 감정이야말로 한 사람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할 뿐 아니라, 공동체적 비전하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주요 동력이다. 주민등록이라는 형식적인 절차가 저절로 ‘주민’의 체감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주민의 체감이 없는 곳에서 지역운동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2) 다큐멘터리의 상이한 재현 양식과 ‘용산’ 다큐멘터리들

다큐멘터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특징들, 관습들과 관련하여 텍스트를 조직하는 기본적인 방식들인 재현양식들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전 및 역사발전 단계와 무관하지 않다. 재현에는 전략과 관습, 제도적 제약 등의 요소들이 작용하며, 재현양식은 비평적이고 분석적인 범주인 동시에 부분적으로는 다큐멘터리 제작 자체의 산물로서 영화제작의 실천들을 가리키기 때문이다(남인영, 2004). 외부 사건이나 사물의 지표성에 근거해 진실 추구를 확정짓는 전통적인 다큐멘터리는 기본적으로 설명적인 재현양식이었다. 그러나 앞선 재현양식의 한계를 성찰하면서 새로운 재현양식들이 실험되고 고안되면서 다큐멘터리의 재현양식들은 역사적 운동의 상황과 시대적 요청, 제작자의 주체성 인식 등에 따라 다양화된다. 다양한 재현양식들을 선형적 발전논리나 단계의 관점에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니콜스(Bill Nichols)는 재현양식들을 설명적, 관찰적, 상호작용적, 성찰적, 연행적 재현양식들로 나누어 설명한다. 설명적 재현양식은 전지적이고 탈역사적인 ‘신의 목소리’를 통해 사건세계를 드러내는 반면, 현장에 늘 카메라가 현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관찰적 재현양식은 민족지

적 방법론처럼 실제의 느낌을 강하게 준다. 상호작용적 재현양식은 제작자와 대상 간의 수평적 관계와 친밀성을 강조하며, 제작자와 타자의 만남에서 비롯하는 상황적 현존과 국지적 지식의 느낌을 전달한다. 기호학을 중요한 방법론으로 삼는 성찰적 재현양식은 재현 자체를 주제에 포함시킴으로써 변혁의 주체가 구성되는 방식에 관심을 집중하며, 연행적 재현양식은 사회적 타자들에 대한 탐구를 제작자 자신의 정체성 탐구와 연결시킨다(Nichols, 1991). 다큐멘터리의 상이한 양식들을 비교 고찰하는데 있어 진화론적, 혹은 발전론적 관점을 채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용산 철거민들의 참사’는 시점에 따라 그리고 ‘소명’에 따라 다양한 양식으로 기록되었다. 예를 들어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사가 일어난 직후 전형적인 설명적 재현양식으로 일종의 ‘속보’처럼 제작되어 용산 ‘철거민’의 상황을 여타 지역의 철거 문제와 함께 알리는데 기여했다. 이것은 ‘참사’ 중심의 자극적 보도 경향에 맞서 투쟁의 본질적인 철거/민 문제를 환기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시급함에 따른 양식이었다. 그리고 ‘나’의 시점에서 성찰적으로 구성되고 있는 「용산」(감독: 문정현, 2010)은 ‘왜 시민들이 용산에 오지 않(았)는가’라는, 당시 시민사회 전체를 향해 던져진 질문에 대한 답변/모색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화 안에서 ‘거리의 신부’로 알려진 문정현 신부가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성찰적 양식과 연행적 양식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용산」에서 용산은 한국 근현대사의 긴 맥락 안에 위치해 있으며, 용산 현장을 찾지 않은 혹은 못한 사람들의 ‘답변’ 또한 보다 긴 생애사적 시공간에서 구해진다. 준 내부 구성원의 위치에서 생산된 「남일당 이야기」(감독: 오두희, 2010)는 제작자의 위치상 깊숙한 내부와 약간의 거리두기를 통한 외부로 동시에 포착해내고 있다. 부분적 일상을 따라다니며 혹은 함께 살아내며 관찰하는 카메라를 통해 관람자는, 23명 투쟁 참여자들의 정체성이 서로 무관한 개인에서 ‘이야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변화해 나가는 과정에 때론 동일시로 때론 (보이지는 않지만) 옆자리에 함께 하는 친밀한 응시자로 동참하게 된다. 시간상으로나 형식상으로나 앞선 작업들의 성과나 단계를 이어받아 나중에 만들어진 「두 개의 문」(감독: 김일란·홍지유, 2012)은 세밀하게 의도된 장면 연출과 배치를 통해 궁극적으로 용산/참사의 ‘진실’은 어디에 있는지를 질문한다. 이 영화는 앞선 다큐멘터리들이 주고받은 질문과 답변들, 제안들, 이야기들의 궁극적 지점을 가리키면서 당대 한국에서뿐 아니라 지구적으로 정치철학과 윤리학의 핵심이 되고 있는 폭력의 문제를 제기한다. 법과 정의, 국가폭력과 저항 민중의 폭력 문제를 ‘진실에 이르는 두 개의 문’이라는 화두로 던지고 있는 이 다큐멘터리는 그래서 실재하지 않는 장면들을 가상으로 연출해야만 하는 형식적 요청을 따른다.

아래에서 좀 더 상세히 언급하겠지만 용산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들은 이처럼 서로 다른 재현 양식으로 제 몫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체 완결성이나 독자적 작품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용산이라는 ‘장소’와 그곳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는, 일상이 있는 삶’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각각의 작업들은 상호참조적, 상호보완적 대화의 관계 속에 있으면서 더 큰 통합적 이해의 지평을 향해 나아간다. 이것은 용산 다큐멘터리들이 모자이크 형식으로, 혹은 이어-말하기 혹은 이어-쓰기 형식으로 상호 관련성을 맺으며 하나의 집단적 용산 이야기를 짜는 것과도 관련된다. 각각의 이야기꾼이 자신이 전해들은 바를 계속 전승함으로써 이야기의 공동체를 만들듯이 이 다큐멘터리들은 전해 듣고 전해 본 기록들을 이어받아 새로운 기록으로 계속 전승함으로써 일종의 기록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다큐멘터리가 할 수 있는 기억의 서사, 즉 역사기술의 한 실천이다. 이러한 공동체 형성의 과정은 카메라가 재현/기록하는 영상의 차원에서뿐 아니라 재현되고 있는 사람들에게게서도 관찰된다. 각각의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사회적 행위자들은 개별 다큐멘터

리의 프레임을 넘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재현과 실제의 구분 자체가 의미를 상실하는 어떤 구성적·형성적 과정을 만들어 나간다. 이것은 디지털 시대에 이르러 이미지의 지표적 성격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기록하기가 ‘이야기하기’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3) 용산참사와 폭력/비판: ‘일상’의 권리를 향하여

용산참사 혹은 철거민 투쟁 다큐멘터리들에서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것은 일상적 삶의 유지와 (안전한 삶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폭력의 상관관계다. 이와 관련해 「마이스윗홈-국가는 폭력이다」와 「두 개의 문」, 「남일당 이야기」는 심도 깊은 성찰과 이야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미지와 역사기록, 그리고 폭력에 심장부를 강타당한 일상의 얽힘은 용산 ‘사건’이 제기하는 핵심 맥락이다. 「마이스윗홈-국가는 폭력이다」의 제목은 이점에서 의미심장하다.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 이래로 국가주의, 가부장제, 자본주의가 함께 지속적으로 키워온 문화 이데올로기인 ‘my sweet home’은 바로 그 국가와 자본에 의해 여지없이 파괴되고 남겨진 것은 법의 이름으로 돌아오는 처벌뿐이다. 「마이스윗홈-국가는 폭력이다」에서 장소 투쟁의 의미는 건설자본과 공권력이 폭력적으로 빼앗아간 ‘일상’의 회복이다. 김창수(망루 농성 과련 불구속 피고인, 성남 단대동 주거 세입자) ‘피고인’⁴⁾ 법정에서 법과 시민들에게 들려준 최후진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망루 4층에서의 공포를 체감하며 생사의 기로에 섰던 저는 돌아가신

4) 이 영화는 용산 철거민들 중 부상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권을 받는 김성환, 김창수, 천주석 세 사람을 중심으로 두 달 간 투쟁 및 재판과정을 따라간다. 세 사람 중 김성환만 용산 사람이고, 다른 두 사람은 연대를 위해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다섯 분이 마지막에 떠올렸을 얼굴이 누구였을지 감히 알 것 같습니다. 그동안 건설자본의 탄압에 상처받은 가족들의 얼굴일 것입니다. 저는 재개발 과정에서 시청과 구청의 묵인 하에 시행사와 시공사, 조합에서 사들인 용역깡패들에 의해 주민들이 폭행당하고 어린 자녀들이 그들의 손에 들려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분노스럽고 답답했습니다. 그동안 건설자본의 탄압에 눌러 세입자들이 길바닥에 내몰린대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서로 같은 처지에 있는 철거민들과 인간적으로 서로 돕고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단 말입니까? 이충현 위원장은 모 방송사와의 인터뷰 중에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동지들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동지들 욱하지 마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세 시간만 도와주면 그들의 희망을 세울 줄 알았습니다. 공권력이 투입되어 용산4가 철거민들의 희망을 만 하루 만에 산산이 깨어버렸습니다. … 이 사건의 주범은 망루에 몰린 철거민도, 일방적인 망루 진압을 지시받은 젊은 특공대원들도 아닌 탐욕스런 자본 권력입니다. 그 욱심 많은 자본 권력의 탐욕으로부터 그 누구도 아닌, 상처받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분노와 답답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망루에 오르려 했습니다. 망루 꼭대기로 내몰린 철거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재판장님께서 베푸실 온정이 있다면 희생되신 다섯 분 그리고 유가족과 구속된 철거민들의 명예를 회복하여 저희가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일상으로 보내주시길 간곡히 청하며 최후진술을 마칩니다.”

용산참사 때 실제로 망루에 오른 40-50명 중 용산 사람들은 10명이 고 나머지 사람들은 타 지역에서 연대를 위해 온 사람들이다. 이들 중에는 전날(19일) 연락받고 아무런 정보 없이 연대왔다가 참변을 겪거나 구속된 사람들도 있다.⁵⁾ 이 영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검사들이나 (그들을 인용하는) 언론이 통상 폭력적 이미지로, 즉 ‘전문 싸움꾼’으로 호명하는 전국철거민연대가, 자연법적인 대항폭력의 의미에서건 단순히 이기적인 목적에서건, 전혀 조직된 폭력과 상관없다는 사실이다. 생존의

5) 이것은 인디다큐페스티벌 2012 용산특별전 상영 이후 열린 포럼 〈용산과 다큐멘터리, 기록과 기억 사이〉에서 「마이스윗홈-국가는 폭력이다」를 제작한 김경승 감독이 들려준 이야기다.

위협이라는 동일한 상황에 처한 ‘동지들’ 외에는 도움을 청할 그 어떤 통로도 없는 상태에서 ‘서로의 희망을 세워주기 위해’ 투쟁에 동참하는 이들의 모습은 신자유주의가 확산시키는 ‘벌거벗은 삶’에 대처하는 연대 내지는 자치의 형태에 더 가깝다. 신자유주의 국가체제에서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더 이상 사회적 연대의 차원에서 통합되지 않음에 따라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위험은 철저하게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었다. 이제 국민은 두 개의 국민, 즉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국민과 비생산적이며 복지 의존적인 국민으로 나뉘게 되었고, 능동적인 활동과 안전의 긴밀한 결합이 강조되면서 안전의 근간이 사회국가가 아니라 개인 창업자 혹은 커뮤니티나 조합 등 중간단체의 ‘자치’로 이양되었다(Saito, 2000).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철거민연대가 벌이는 연대 투쟁은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본주의의 위험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자치 활동이다. 그러나 사회보장에 대한 관심을 치안보장으로 대체하고 국민 전체의 생명 보전에 대한 관심을 특정 사회계층의 안전 보호로 대체하는 (Rose, 1999) 국가의 입장에서 이것은 치안을 방해하는 ‘폭력’이다. 치안 유지를 위해 즉 ‘선량한 시민’(여기서는 자본가)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는 공권력은 그렇다면 폭력과 무관한 것인가.

벤아민은 “폭력비판을 위하여”에서 폭력(Gewalt)이⁶⁾ 법 그리고 정의와 맺는 관계들을 서술하면서 법은 개인에 대해 폭력을 독점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강조한다. 자연사의 관점에서 모든 개인들은 법적 주체로서 상황이 요구할 경우 합목적적으로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은 (혹은 법질서로 스스로를 이해하는 국가는) 개인의 수중에 놓인 그러한 폭력이 법질서를 전복할 수도 있다고 본다(벤아민, 2008b: 85). 따라서 법은 그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모든 영역에 법적 목적들을 세워 법적 강제력만이 폭력을 행사하게 한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법이 막으려

6) 독일 Gewalt는 힘, 폭력, 권력, 권능, 무력 등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

하는 위험이 법적 목적이거나 법적 집행권의 무력화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법 자체의 부정에 해당된다는 사실이다. 즉 법의 외부에 존재하는 그러한 폭력이 그 자체로 법을 새롭게 제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정법의 차원에서 폭력비판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목적과 수단 간의 관계가 어떠한 “모든 폭력은 수단으로서 법정립적이거나 법보존적”(벤야민, 2008b: 96)이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전쟁권의 경우 폭력은 승리 속에서 법제정적으로 등장하고, 국민개병제도를 통해 형성된 군국주의의 경우 폭력은 국가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말하자면 법보존적으로 사용된다. 법정립적 폭력과 법보존적 폭력이 현대 국가의 제도 속에서 “마치 유령 같은 혼합의 형태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경찰이다 (벤야민, 2008b: 95).

경찰의 ‘권리’(법)는 근본적으로 국가가, 무력해서든 아니면 각각의 법질서의 내재적 맥락 때문에서든,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도달하기 원하는 자신의 경험적 목적들을 더는 법질서를 통해 보증할 수 없는 지점을 가리킨다. 따라서 경찰은 법적 목적과 관련이 전혀 없는데도 ... 명백한 법적 상황이 주어지지 않은 무수히 많은 경우에 ‘치안 유지 때문에’ 개입한다. ... 경찰제도가 문명화된 국가들의 삶 속에 떠도는 결코 포착될 수 없고 도처에 확산되어 있는 유령 같은 현상이듯이 그것의 폭력은 형태가 없다(벤야민, 2008b: 95-96).

용산참사를 유발시킨 경찰특공대의 투입은 법제정적이고 법보존적인 경찰의 폭력성을 잘 드러낸다. 다큐멘터리 「두 개의 문」이 치밀하게 추적하고 재구성해서 보여준 것처럼 일 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이 남긴 유일한 진실은 법의 무규정성이다.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의 죽음을 가져온 특공대 투입은 ‘명백한 법적 상황’이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아니 않았기 때문에 ‘치안 유지’를 위해 경찰의 개입이 역설적으로 정당화된 경우다.

「두 개의 문」에서 각각의 문은 서로 상충되는 두 개의 이해관계, 갈등으로 이어진다. 영원히 평행선을 그릴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개의 길에서 법은 맹목성에 눈이 멀어있고, ‘진실’을 찾고자 이 길 위에 나선 관객들은 승인된 폭력과 승인되지 않은 폭력 사이에 아무런 중재의 가능성이 없음에 놀란다. 오히려 관객-국민들에게 제기되는 질문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부인(否認)의 아비투스(habitus)다. 「두 개의 문」을 공동 제작한 김일란 감독은 철거나 재개발의 모순에 대해 많은 재현물이 만들어졌는데, 왜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할까, 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했다고 말한다. 결국 문제는 진상규명을 ‘외면하는 대중’이고 대중의 외면하는 아비투스야말로 ‘역사 안에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것, 그래서 역사는 일정 부분 외면의 반복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두 개의 문」은 관객들이 용산참사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생각해봄으로써 조금이라도 ‘외면하는 대중’의 저두껍고 무감각한 알리바이에서 걸어 나와 책임 있는 ‘목격자’가 될 것을 촉구한다.⁷⁾

여기서 본 글과 관련해 관심을 끄는 것은 ‘목격자’가 되어 가까이 개입에 나서는 힘은 즉각적인 보고에 따른 즉각적인 앎과 무관하다는 사실이다. 코언(2009)이 치밀하게 밝혀내고 있듯이 진상규명이 역사 속에서 그토록 드물게 나타나는 것은 정보나 앎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가, 사회, 집단, 개인 차원에서 일상화되어버린 교묘한 부인의 메커니즘 때문이다. 소극적 정당화로서의 해명이든 핑계든, 적극적인 이데올로기적 정당화로서의 대의명분이든 부인은 “무엇인가를 알면서도 동시에 모르는 기이한 상태(코언, 2009: 90)”를 가리킨다. 공모체제에서 일어나는 ‘집단적

7) 이것은 위의 포럼에서 「두 개의 문」을 공동 제작한 김일란 감독이 들려준 이야기다.

맹목'과 '책임의 부인(코언, 2009: 170)' 혹은 일상에서의 방관 등은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타인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자각'의 둔화와 연결된다. 3장에서 논한 맥락에 따르면 이것은 장소를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순환되는 이야기의 부재와 상관된다. 사람들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는 것은 최신 정보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쏟아지는 '좀 더 많은' 소식들이 아니라 이야기들, 즉 삶이라는 직물 속에 짜 넣어진 '조언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미지의 반복적 사용 역시 정보와 이야기라는 두 개의 상이한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다.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용산관련 다큐멘터리를 총 4편 제작한 장호경 감독은 동일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의 딜레마를 말한다.⁸⁾ 동일한 이미지의 반복은 기의에 스며든 이데올로기를 지우고 싶을 때 훌륭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기의 차원이 사라지면서 기표 차원만 남겨지는 것이다. 반면 동일한 이미지를 새롭게 형상화시킴으로써 '낯선' 맥락을 조직해내는 것, 이로써 이미지의 유동하는 의미 투쟁을 전면에서 부각시키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미지 전략이다. '정치적 각성'을 유발시키기 위해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재배치시킬 것인가, 이것은 실재를 지표적으로 기록한다고 하는 다큐멘터리 정신과 어떻게 만나는가. 발화행위는 물론 장소와 환경, 분위기를 중요한 의미의 구성요소로 포함한다. 그러나 '진술'에 해당하는 언어는 이미 메타 차원에 속하는 것이며, 이러한 메타 언어에 대해서는 또 다른 메타 차원의 해석 논쟁이 가능할 수 있다.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장호경 감독이 4번에 걸친 영상작업이 가져온 이미지 반복으로 인해 '내가 지금 하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희석되는 경험을 했다면, 「두 개의 문」의 김일란 감독은 다른 감독들이 만든 이미지들을 이동시키고 낯선 질문 앞에 세움으로써, 아니 이미지들 자체

8) 이것은 위의 포럼에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작한 장호경 감독이 들려준 이야기다.

가 다른 질문이 되게 만들으로써 지표성과 종종 연계되었던 ‘부인’의 메카니즘을 오히려 고발한다. 두 개의 영화는 물론 상이한 목적에 봉사한다.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용산참사가 일어난 날부터 1여 년 후 참사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있기까지 ‘그 곳’, 바로 ‘그 장소 그 사람들’을 낱낱이 기록한다. 이 관찰에서 종종 등장하는 ‘고통받고 오염하는 몸들’은 정치적 미메시스(mimesis)의 효과를 낳는다(Gaines, 1999).⁹⁾ 이 적나라한 몸들은 관람객들을 정동적으로(affective) 감염시키고 이로써 정치적 행위로 나아가게 독려한다. 이에 반해 용산 관련해서 비교적 늦게 만들어진 「두 개의 문」은 기존의 이미지들과 이야기들의 토대 위에서 그것들을 재배치하면서 메타 차원에서 용산 ‘참사’와 그 이후의 이해 불가능한 침묵의 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두 개의 문」에서 메타 차원과 일차적 발화 차원이 겹쳐 있는 부분은 경찰특공대의 진술 부분이다. 경찰특공대들은 직접 감독이 든 카메라 앞에서 발언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의 직접성을 간직하고 있다. ‘부인’과 관련해 이들의 진술 부분은 매우 중요하고 흥미롭다. 이들은 명령 수행자로서 현장에서 망루 철거를 몸으로 수행했기에 당사자 이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상대한’ 철거민들에 대해 발언하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영화는 이들을 주목한다. 이들을 중심으로 관찰과 해석의 형상을 새롭게 조형한다. 이들은 ‘불행하게도’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명령에 따라 ‘살인사건’을 가장 가까이서, 그 살인사건의 연루자로서 체험한 ‘목격자’다. 그래서 이들의 ‘심리상태’도, ‘개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들의 행동결정도 영화에서는 중요하다. 이들의 ‘진술’은 두

9) 정치적 미메시스는 이성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몸의 장르와 관계한다. 소리를 지르게 하는 호러, 울게 하는 멜로드라마, 성적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포르노처럼 다큐멘터리의 선동적인 이미지들은 무의식 중에 스크린에 재현된 몸의 감정과 신체이성을 관객의 몸에 전이시킨다. 이로써 사람들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개의 장소와 두 개의 심리-정신적 축에서 흔들린다. 용산참사 이후 곧바로 옮겨진 병원에서 이들이 제공한 진술은 신체적 반응을 정직하게 옮겨놓고 있으며, 그만큼 ‘진실’에 가깝다. 몸을 매개로 ‘시인’하고 있다 고나 할까. 그러나 나중에 법정에서 행한 이들의 진술은 기계적으로 조직과 제도의 규칙을 반복하고 있다. 아예 부인과 시인의 선택 자체가 불가능한 무능력의 상태에 갇혀서.¹⁰⁾ 관객들은 이 과정에서 살짝 이들에게 감정이입하면서 사실은 모두가 이들처럼 ‘그날 그 시간 그곳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데 지금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게 된다. - 그 날 다른 곳에서 일하거나 쉬거나 잠을 잤다고 해서 그 시간에 ‘용산’에 있지 않았다고, 다시 말해서 목격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목격자임’을 ‘시인’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코언은 공감과 결의, 행동 등을 예로 든다. 그렇다면 공감과 결의, 행동을 가능케 하는 힘은 어떻게 가능한가. ‘부인의 메카니즘’으로 질문과 답변의 축을 옮기는 것이 관점을 ‘법’에서 ‘윤리’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러한 윤리의 관점을 가장 잘 구현하는 행위성은 다시 언어로 돌아간다.

“법이라는 현상은 매우 이의성을 띤 윤리적 빛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벤야민, 2008b: 96)” 서로 상충하는 이해관계들을 해결하는데 (법을 포함한) 폭력적 수단 외의 수단은 없는 것인지 질문하게 된다. 갈등들의 비폭력적 해결 혹은 화해는 인종 간, 종교 간, 계급 간 긴장관계가 점점 더 심화되면서 당대의 중요한 정치/철학적 화두가 되고 있다. 벤야민은 이러한 비폭력적 순수한 수단을 기술로서의 담화, 즉 의사소통의 영역에

10) 영화를 여러 번 새로 편집하는 과정에서 제작팀은 특히 경찰특공대원들의 이러한 갈등적 위치성에 주목했다. 재판과정에서 제1제대장은 변호사의 질문에 하등의 심리적 갈등을 느끼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명령수행’을 강조한 반면, 특공대원들은 ‘감정’이 묻어나는 답변을 한다. 영화는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한다. 이것은 독립영화감독들이 모여 ‘두 개의 문’에 대해 토론할 때 제작팀이 들려준 이야기다.

서 찾는다. 비폭력적 수단으로서 담화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적어도, 부인의 메커니즘을 내파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내파를 가능케 하는 것 역시 역설적이게도 ‘말하기’다. 「두 개의 문」에서 두 개의 상이한 진술 회로에 갇힌 저 경찰특공대원들에게 필요한 것도, ‘고통과 분노, 억울함’의 외상에서 해방되어 ‘일상’을 회복하고 싶은 철거민들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이야기하기’의 가능성이다.

4) 송신된 목소리,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소/성 만들기 그리고 젠더화된 스토리텔링

검찰이 압수한 사자후 TV 동영상에서 가장 강렬한, 그래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유포되었던 장면은 불타는 망루와 함께 터져 나온 “망루 안에 사람 있어요!”라는 절규였다. “45명의 전철연 조합원 … 저 안에 …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에 계신 분들 …” 채 끝맺지 못한 누군가의 이 절박한 절규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와 닿으려고 애쓰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송신된 이 메시지는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수신될 것인가.

23명의 ‘이춤마들’이 11개월 동안 ‘살면서 남일당을 지킨’ 과정을 관찰 자적 시점에서 따라 가는 「남일당 이야기」의 한 여성이 들려주는 “여기 사람이 있어요”라는 말은 이에 대한 하나의 답변이 되고 있다. 「남일당 이야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소/성과 경험의 공유, 그리고 이야기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이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사건’이 터지고 난 후 망루가 있던 남일당 건물에 모여 투쟁을 해 나가면서 ‘비로소’ 이웃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여기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 주변에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서로 얼굴을 마주대고 일상과 투쟁을 병행해나가는 11달 동안 이들은

‘진정한’ 공동체를 구성하게 된다. 이것은 이들이 서로의 개인사를 접하게 되고, 투쟁의 다양한 국면들을 함께 살아내면서 공동의 ‘이야기 거리’를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야기와 관련해 매우 흥미로운 지점은 망루에 관한 것이다. 용역들의 폭력과 욕설이 일상이 되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결국 망루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철두철미하게 보안이 된 통로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니 풍경이 달랐다. “딱 올라갔는데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그 안에 식량 같은 거 … 개를 키우질 않나 토끼를 키우질 않나.” 위기상황에 대처해 만들어진 망루지만 여기는 사람과 동물이 음식과 온기를 나누며 함께 ‘일상’을 영위하는 엄연한 삶의 터였다. ‘예외상태’에서 마련된 작은 공간은 명실상부하게 장소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여성들이라서 그런 걸까? 남일당에 모여 ‘투쟁’을 하는 여성들은 살림과 관련된 말을 주로 하고 살림을 살듯이 투쟁을 ‘산다’. 예전에 음식점을 운영했다가 지금은 지물포를 운영하고 있다는 한 여성은 설거지를 하면서 “항상 몸에 익었던 일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장사를 못한지가 … 작년부터 못했거든요. 설거지를 하러 이렇게 오는 게 즐거운 거 있죠. 나 옛날 나 살았던 그게 이제 다시 이렇게 되고 …” 그녀의 말은 장소성이란 몸과 관련된 곳임을 암시한다. 특정한 몸놀림이 스며있는 곳, 그곳이 장소다. “(2009년) 19일에는 비가 몹시 왔다. 거의 물바다가 될 것 같았다. 우리는 쌀 젖겠다는 오직 그 생각 밖에 없었다. 그래서 힘을 모아 함께 비닐을 잘랐다”고 또 다른 여성은 말한다. 20일 새벽은 특공대가 상부의 지시를 받고 용산을 향해 출발하던 날이다. 19일, 망루에 올라간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특공대원이 죽는 ‘참사’가 벌어지기 전날 사람들은 쌀 젖는 것을 걱정하며 쌀을 덮기 위해 비닐을 자르고 있었다. 이튿날 벌어지는 사건과 비교할 때 이 ‘비에 젖을 쌀 걱정’은 너무나 ‘정상적인 일상’의 풍경이다. 위에서 인용한 「마이스윗홈-국가는 폭력이다」의 철거민 김창수 씨가 말하듯이 ‘참사’의 시작과 끝은 바로

‘일상’의 박탈과 복원이다. 폭력을 독점한 국가가 스스로를 국민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에게서 박탈한 것은 모든 국민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정치적 관점에서 종종 비정치적 태도의 온상으로 간주되어 비판되는 ‘일상’이다. (남일당 여성의 경우처럼) 쌀을 짓지 않게 잘 간수하고, (김창수 씨의 경우처럼) 어린 딸아이와 함께 동물원에 가는 것이 중요한 그 일상은 ‘예외상태’에 내몰린 ‘텅 빈 생명’들에게는 용납되지 않는다.

『남일당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비슷한 정치경제적 경로로 투쟁의 길을 걸어 간 다른 ‘아줌마들’처럼 처음에는 ‘사람이 죽어나가고 감옥에 갇히고 하니까, 투쟁의 일환이라는 생각보다는 사람의 도리를 하자는 뜻으로 무서워하면서 뛰어다니다가’ 점차 투사로 성장해 나간다. 이랜드 비정규직 기혼 여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이전에 촛불집회에 나섰던 여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의 경험도 ‘배움’과 ‘성장’을 거쳐 ‘투사’가 되는 과정으로 유형화시킬 수 있다. 세 경우 모두 전문적이지 않은 ‘평범한 여성’, 혹은 ‘아줌마’의 상태에서 출발해 긴 시간의 현장 경험을 통해 동지적 신념과 감성을 나누는 투사로 진화한다. 그러나 남일당 여성들의 ‘투사되기’ 과정은 이전의 경우들과 또 다르다. 이들은 함께 ‘살면서, 장소/성을 만들면서’ 정말 독특한 투쟁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살림’의 모습과 투쟁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이 다큐멘터리 『남일당 이야기』에서는 특히 여성적 스토리텔링의 면모가 두드러진다.

50대 후반 이상의 연령대에 있는 23명의 여성들이 남일당에서 11달이 넘게 합숙하며 함께 산다. 돌아가며 식사 당번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음식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동지들에게 먹인다. 고인들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방에서 이부자리를 펴고 잔다. 이들의 “형제나 친척보다 더 형제고 더 친척”이라는 말이 증언하듯이, 이것도 투쟁의 하나라는 사실은 그들

에게 매우 중요하고 당연하다. 싸움에도 역할과 배역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한다. 한 여성이 말한다. “힘으로 싸우는 사람, 말로 싸우는 사람, 음식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래서 ‘단결, 투쟁’이라는 글자가 등판에 새겨진 조끼를 입고 이들은 밥을 짓는다. 세탁기를 몸으로 모방하면서 고무대야에 담긴 빨래를 발로 꺾꺾 밟아 뺀다. 거리집회에 나가 경찰이나 용역과 몸싸움하다가 방패에 찍혀 피 줄줄 흘리며 돌아온다. 붉고 푸른 멍이 잔뜩 든 그 팔로 뜨개질을 하고 ‘신 남일당 풀이’ 창을 비롯해 애환이 가득한 노래와 정치풍자 노래를 배운다. 참사를 당한 철거민 동지들에게 편지를 쓴다. 추석 때는 송편을 빚는다. 수레에 가득 설거지 그릇을 담아서 폭력과 죽음이 소용돌이쳤던 4구 골목을 가로지르는 이들의 모습은 용산 ‘참사’를 대표하는 표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들은 철거결정이 나기 전에도 식당을 운영하면서, 또 살림을 살면서 음식을 해 먹었다.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이 과정이 “우리를 투사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투쟁 이외의 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60세인데, 30년간 일해서 그 가게 하나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다시 시작하면 또 30년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찰 앞에서는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굳은 각오를 다지기도 한다. 그러면서 “철거민하면서 솔직히 이런 투사가 되어야 하는 건가?”라는 갈등과 고민을 털어놓기도 한다. 이 고민은 의미심장하다. 원치 않은 투사의 길로 내모는 구조를 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갈등과 고민은 “철거민들 중 일부가 서울시와 따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돌면서 정점을 향해 치솟는다. 유가족들과 용산4상공철대위 사이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4가 식구들’은 그동안의 수고로움이, 그동안 함께 먹고 자고 투쟁하며 쌓아 온 공동체의 그 ‘작은 진실’이 무너질까봐 고통스러워한다.¹¹⁾ 만약 우리가 용산

11) 이들은 카메라를 향해 자신들의 고통과 슬픔을 토로한다. “어차피 없이 사는 건데,

관련 다큐멘터리에서 거대 서사가 지향하는 진실의 축을 국가와 법질서와의 관계에서 찾는다면, 남일당이라는 건물을 중심으로, 건물 안에서 몸과 몸의 만남을 들려주고 있는 「남일당 이야기」는 장소/성과 관련한 ‘작은 진실’을 다룬다. ‘4가 식구들이 시청이나 구청을 쫓시고 다닌다’는 소문을 두고 한 여성이 말한다.

“만나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누구 하나 우리 4가 구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 4가 식구들은 4가 식구대로 뭔가 해결책이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보처럼 이때까지 한번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생존권을 잘못된 개발법을 고치라고 그분들은 거기에 하루 만에 올라가서 올린 그거를 우리는 여기서 하루하루하루 그거를 망루를 쌓다보니까 300일의 망루를 쌓은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올라간 사람이나 우리 남아서 여태까지 한 사람이나 똑같이 망루에 오른 사람들에요.”

이 여성의 말은 그동안 여성주의가 지향했던 공공성 정치학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나누고, 여성의 ‘살림하는’ 노동을 사적 영역에 고유한 것으로 본질화하면서 그 노동의 공적 가치를 부인해 온 저 공공성 논의에 여성주의 정치-문화 투쟁은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해 왔다.

강제퇴거에 저항하는 철거민들의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생존권 투쟁으로 시작된 용산 투쟁은 ‘불타는 망루’를 전환점으로 점점 더 투쟁의 ‘상징’으로 변용되어 갔다. 사람을 희생시켜 자본의 무한증식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발전주의 경제체제와 그 발전주의 논리로 ‘국민’과 ‘비국민’

얼마나 또 고생을 하라구...”, “우리가 욕심 부리는 건가요? 그러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건가?”, “저희를 반기는 곳은 없는 것 같애. 슬픈 일이죠?”, “지금은 힘든 시기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날 거다. 마음과 머리 비우고 기다리면 된다.”

을 가르는 국가, 그리고 부인하는 대중-사회정의의 반대편에서 번성하는 이 모든 생명과괴 현상들에 대한 투쟁의 상징이 되어 갔던 것이다.¹²⁾ 용산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공간’의 성격이 강했던 곳이다. 그리고 투쟁의 상징이 되면서 더욱 더 ‘공간적’ 성격이 강해졌고 이것은 ‘망루’를 중심으로 한 투쟁이 남성화되어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2장에서 논의했듯이 초국가 자본 중심의 지구적 차원은 공간으로 표상되고, 삶과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에 주목하는 지역적 차원은 장소로 표상된다. 그리고 이러한 표상은 성별화되어 있다. 자유로운 이동과 결부된 공간이 남성/적인 것으로 은유된다면, 뿌리내린 혹은 못 박힌 삶과 결부된 지역은 여성/적인 것으로 은유된다. 용산의 표상도 이러한 도식에서 그다지 멀지 않다. 철거민 운동 자체가 매우 남성적인 것이려니와 (실제로 용산 투쟁에 동참한 전국철거민연대 회원들은 모두 남성들이다) ‘불타는 망루’가 상징하는 투쟁은 (망루에서 산화한 열사와 그들의 비참한 죽음을 통곡하는 몸으로 애도하는 ‘미망인’으로 구성된 스토리가 보여주듯이) 전형적인 가부장제 도상학을 따른다. 이런 구도에서 “우리는 여기서 … 300일의 망루를 쌓은 거다”라는 ‘남일당 지킴이 아줌마’의 발언은 지극히 정치적이다. 정치적 교섭과 협상의 권한을 ‘망루에 올라간’ 사람만이 독점할 수 없다는 그의 발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23명 ‘아줌마들’만 등장하는 「남일당 이야기」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지향했던 ‘정치적인 것’을 전면에 드러낸다. 실제로 화면 위에서 쉴 새 없이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는 이 23명의 여성들이 실천하는 ‘투쟁’은 많은

12) 용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든 감독들은 대부분 이 ‘상징화’의 위협을 지적한다. 용산참사가 있는 지 열흘 만에 10 분짜리 ‘호외용’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든 장호경 감독은 망루가 불타고 사람이 죽는 ‘사건’이 생긴 후 사람들의 관심이 재/개발과 철거/민에서 멀어지는 것이 걱정되어 서둘러 ‘철거/민’영화를 만들었다고 진술하고, 「마이스윗홈-국가는 폭력이다」를 만든 김청승 감독은 용산이,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불타는 망루’가 너무 거대한 ‘상징’이 되어버려 자신의 다큐멘터리에서는 그것을 조금이나마 해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한다.

여성들에게 해석의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성별화된 공/사 영역 구분이 여기서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반복되는구나, 절망할 수도 있다.¹³⁾ 고통의 견딜과 배품의 증거 및 상징으로 등장하는 ‘밥’은 현실적으로 누가 ‘짓고’ 누가 ‘먹는가’라는 노동의 질문을 숨기고 있다. ‘명동성당 영안실 그리고 용산대로변 남일당 건물 맨바닥에서 1천 끼가 넘는 밥을 지어먹고 은박 돛자리 하나 깔고 371일 잠을 잔 진정한 이유’에 등장하는 1천 끼의 밥은 단지 은유로만 머물 수는 없다. “‘먹임’ 자체나 운동의 구심에 ‘먹임’이 있었다는 사실과 의미를 부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먹임’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투쟁의 구심으로 보였을까, 투쟁의 한 가운데서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그것을 투쟁의 한 방법으로 받아들였을까” 질문이 남는 것이다.¹⁴⁾ “(우리도) 300일의 망루를 쌓은 거”라는 저 여성의 발언은 이러한 질문에 생산적인 토론을 불붙인다. 23명의 여성들이 한 명의 누락자도 없이 끝까지 함께 11개월 동안 남일을 지킨 ‘이야기’는 일의적 해석이나 판단을 넘어서 ‘살림과 돌봄’이 어떻게 정치적 형식과 내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생산적인 토론과 논쟁의 장을 펼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공동체’와 관련해 ‘남일당 이야기’가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여럿이면서 하나’인 주체성을 구성한다는 사실이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지만, 이들 각자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일 때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획득한다. 여기서 하나의 커다란 켈트 속에 등장하는 복수의 주체는 서로가 ‘자기로서의 타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구축해나가는 ‘여럿 중의 하나’들이다.

서울시는 7개월 만에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그 안에 진상 규명을 위한

13) 나와 함께 ‘장소/성과 젠더’모임을 이끄는 구성원들은 ‘남일당 이야기’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밥’서사에 주목했다. 함께 용산 다큐멘터리를 보며 다각도로 토론을 펼쳐준 그들에게 감사한다.

14) 이것은 ‘장소/성과 젠더’ 모임에서 발표한 김수경의 글에서 인용한 것이다.

책임 있는 사과는 없었다. 보상 역시 유기족 위주로 이루어져, 결국 철거민은 협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아무리 피해가 커도 무허가, 노점, 이 사람들이랑 우리랑 똑같이 받은 거야. ... 돈 문제 만큼은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해주고 하나로 갔다.”

“내가 올해 60이잖아요. 59년 동안 살았던 이야기보다 여기서 11개월 이야기가 더 길고 더 많고 그리고 상처도 많이 받고 또 나 자신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도 줬을테고 스트레스 다 받은 그런 상황에서 그랬는데 나는 하나 기분 좋게 느끼는 거는 우리 23명이 끝까지 잘 버티고 잘 왔다는 거”

라고 말하는 이 여성들은 구속된 철거민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에 더 주목한다. “구속된 동지들이 나와서 활동하기 전까지는 제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이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조언’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4. 나가는 말

황폐해져 잠재적 범죄의 온상이 될 위험에 처한 도시의 공원을 삶의 활력이 넘치는 공동체의 장소로 만든 토론토 ‘아줌마들’의 이야기가 있다. 이들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감시를 피해 밤마다 공원에 꽃을 갖다 심었고 (이것은 불법이었다!) 공원 한가운데 공동의 화덕을 설치해 다함께 유기농 피자를 구워먹기 시작했다. 반항심에 집을 뛰쳐나간 10대 소녀들도, 이주민들도, 우울증에 빠진 주부들도 이 공동화덕에서 구워낸 피자를 먹으며 귀속감을 확인한다. 서로 ‘조언’을 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탈발전주의 장소 만들기에 성공한 이들 Dufferin Grove 공동체의 이야기는 강한 전염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 닿았고, 이미 여러 곳에서 유

사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Wekerle, 2005; www.dufferinpark.ca).

「남일당 이야기」는 영화가 끝나갈 무렵 다음의 내레이션이 들린다.

“죽은 사람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는 눈물과 절규로 범벅이 된 이들의
체취를 다른 거리로 실어 나르기에는 역부족인 듯했다. 당장 자기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물이라면 그것을 불로 느끼겠지만 남의 이야기로 듣는다면
구경거리일 뿐이기 때문이다.”(강조 필자)

그리고 마지막 자막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자신이 만든 고립된 망루 속에 갇혀 살고 있는 건 아닌지…
특유의 강인함과 낙천성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지만 그러나 그 힘
은 남일당을 넘지 못했다. 여기 사람이 있다고 외쳐도 듣지 못하는, 사람
이 죽어야만 겨우 쳐다봐 주는 냉혹한 세상에서 남일당 참사는 끝이 아니
라 어찌면 시작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이 영화에서 제작 주체는 공동체의 외부에 있지 않다. 카메라를 든
오두회는 남일당 주민이 되어 철거민 당사자의 위치에서 촬영했다. 위의
내레이션과 자막은 그녀가 주민의 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주민들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살피는, 즉 ‘자신’과 ‘남’의 정체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임을 가리킨다.¹⁵⁾ 그녀의 이 ‘근심어린’ 목소리는 제작자와 제작대
상의 상호 침투하는 경험과 거기에 깃든 진정성을 담보하면서, 그녀와
함께 관객들에게 ‘만들어진 장소/성의 정치학’에 대해 여러 갈래 생각
들을 이어가게 만든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이것이 관건 아닌가.

초국가적 자본의 욕망에 대해 ‘우리의 장소’를 만들고자 할 때¹⁶⁾,

15) 「남일당 이야기」제작자의 이 위치성에 대해 함께 토론해준 류미레 감독에게 감사한다.

16) 철거/민의 거주권 문제는 완전히 삭제시킨 채 화재와 그로 인한 경찰의 죽음에 대한 책임 소재 확인으로만 일관된 재판 과정은 초국가 자본의 편에 선 국가의 태도

그 ‘우리’와 ‘장소/성’의 정체성은 본질화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되고, 그만큼 상황적으로 유동적이며 지속적인 변화의 가능성 속에 놓여 있다.¹⁷⁾ 지속적인 변화는 몸으로 실천하는 운동과 이야기의 전파 양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대추리나 두리반이 그랬듯이 용산의 경우도 긴 투쟁의 기간 동안 함께 경험한 그 이야기들은 ‘실제 삶’만이 들려줄 수 있는 조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귀에 가 닿고 있으며,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운동이 요구되는 곳에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철거민들이 결국 용산을 거대 자본과 국가 폭력에 빼앗겼다 해도 용산의 ‘장소성’은 그들의 삶에, 그리고 그들의 조언을 듣는 무수한 다른 사람들의 삶에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 그들이 들려주는 조언은 “용산참사, 우리에게 닥칠 내 일입니다”이다. 이 조언을 듣는 사람들은, 이야기의 전통이 그러하듯,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할 것이다.¹⁸⁾ ‘용산 이야기’는 필요성과 그리고 또 사회적 관습에 따라 여러 모순을 내장하고 있다. 주로 남성 활동가 중심으로 구성되는 스토리텔링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용산의 이야기가 전승될 때 그것은, 이 논문이 수행적으로 시도한 것처럼, 그러한 모순들이 성찰적으로 조정·조율되는 과정을 포함한다는 사실이다.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 중에 의미의 몸을 얻기 때문이다.

를 거의 초현실적으로 보여준다.

- 17) 장소의 공동체적 성격을 강조할 때, 모든 공동체 구성에 필연적인 통합과 배제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사유하고 재구성할 것인가는 열린 질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진은영, 2010). 장소는 ‘국가의 내재적 폭력성’과 마찬가지로 안전과 강제라는 모순된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이 내재적 모순을 견디면서 공동체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앞서서도 강조했듯이, 물리적 영토나 ‘문화’가 아니라 삶의 ‘문화적’ 양식과 소통에 기반을 둔 ‘장소성’을 강조해야 한다.
- 18) 「두 개의 문」 경우 시민들이 배급위원이 되어 가능한 폭넓은 소통의 과정을 모색하는 것도 이러한 ‘이야기 전승’의 중요한 예다.

참고문헌

- 기든스, 앤소니(1997),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후기 현대의 자아와 사회』, 권기돈 옮김, 서울: 새물결, Giddens, A.(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김소영(2011), “신자유주의 시대의 폭력, 육체, 인지적 매핑”,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젠더와 문화』, 제4권 2호, 71-108쪽.
- 김진호(2009), “‘불타는 몸들’의 강요된 침묵, 그것은 나의 욕망인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자의 죽음』, 서울: 산책자, 260-274쪽.
- 남인영(2004),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의 재현양식 연구”,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렐프, 에드워드(2008),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 외 옮김, 서울: 논형, Relph, E.(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 Pion Ltd.
- 백승욱(2009), “경계를 넘어서는 연대로 나아가지 못하다: 촛불의 낙관주의에 대한 어떤 우려”, 『그대는 왜 촛불을 끄셨나요』, 서울: 산책자, 36-50쪽.
- 백, 올리히(2011), 『글로벌 위험사회』, 박미애·이진우 옮김, 서울: 길, Bech, U.(2007), *Weltrisikogesellschaft*, Frankfurt am Main: Suhrkamp.
- 벤야민, 발터(2008a), “경험과 빈곤”,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폭력비판을 위하여, 초현실주의 외』, 최성만 옮김, 서울: 길, 169-180쪽, Benjamin, W.(1977), *Gesammelte Schriften, Bd I,2*, Frankfurt am Main: Suhrkamp.
- _____ (2008b), “폭력비판을 위하여”,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 폭력비판을 위하여, 초현실주의 외』, 최성만 옮김, 서울: 길, 77-117쪽, Benjamin, W.(1978), *Gesammelte Schriften, Bd 1,2*, Frankfurt am Main: Suhrkamp.
- 블레이, 하름 데(2009), 『공간의 힘: 지리학, 운명, 세계화의 울퉁불퉁한 풍경』, 황근하 옮김, 서울: 천지인, Harm J, d. B.(2010), *The Power of Place: Geography, Destiny, and Globalization's Rough Landscap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스미스, 마이클 피터(2010), 『초국적 도시이론: 지구화의 새로운 이해』, 남영호 외 옮김, 파주: 한울, Smith, M. P.(2000), *Transnational Urbanism: Locating Globalization*, Oxford: Blackwell Publishing Ltd.
- 옹, 윌터 J.(1995),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이기우·임명진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Ong, W. J.(1982), *Orality and Literacy: the Technologizing of the Word*, London: Routledge.
- 은수미(2009), “촛불과 한국 사회 중산층의 자화상: 더 나은 촛불을 위한 한 연구자의 소고”, 『그대는 왜 촛불을 끄셨나요』, 서울: 산책자, 215-233쪽.
- 진은영(2010), “소통, 그 불가능성의 가능성”, 이화인문과학원, 『탈경계 인문학』, 제3권 2호, 59-89쪽.
- 코언, 스탠리(2009),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왜 국가와 사회는 인권침해를 부인하는가』, 조효제 옮김, 파주: 창비, Cohen, S.(2001), *States of Denial: Knowing about Atrocities and Suffering*, Cambridge: Polity Press Ltd.
- Agamben, G.(2002), *Homo sacer: die souveraene Macht und das nackte Leben*, aus dem Italienischen von Hubert Thuring,

Frankfurt am Main: Suhrkamp.

Benjamin, W.(1977), “Der Erzähler: Betrachtungen zum Werk Nikolai Lesskows”, in *Gesammelte Schriften, Bd. II,2*, pp. 438-465.

_____ (1978), “Über den Begriff der Geschichte”, in *Gesammelte Schriften, Bd I,2*, Frankfurt am Main: Suhrkamp, pp. 691-704.

Castells, M.(1997), *The Power of Identity*, Oxford: Blackwell Publishers.

Dirlik, A.(2001), “Place-Based Imagination: Globalism and the Politics of Place”, in *Places and Politics in an Age of Globalization*, ed. R. Prazniak and A. Dirlik,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pp. 15-52.

Escobar, A.(2001), “Place, Economy, and Culture in a Postdevelopment Era”, in *Place and Politics in an Age of Globalization*, ed. R. Prazniak and A. Dirlik,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pp. 193-218.

Gaines, J.(1999), “Political mimesis”, in *Collecting Visible Evidence*, ed. J. Gaines and M. Renov,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p. 84-102.

Harvey, D.(1989),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Oxford: Blackwell Publishers.

Lefebvre, H.(1990), *The Production of Space*, Oxford: Blackwell.

Nichols, B.(1991), *Representing Reality: Issues and Concepts in Documentar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Rose, N. S.(1999), *Powers of Freedom: Reframing Political*

-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ito, J.(2000), *Kokyosei*, Tokyo: Iwanami Shoten Publishers.
- Wekerle, G. R.(2005), “Domesticating the Neoliberal City: Invisible Genders and the Politics of Place”, in *Women and the Politics of Place*, ed. W. Harcourt and A. Escobar, Bloomfield: Kumarian Press, Inc.
- Kim, Y. O.(2010), “Understanding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 and Women’s Political Subjectivity through the Perspective of Changing Publicity”, *Korea Journal*, 50(3), pp. 38-70.

〈인터넷 자료〉

Friends of Dufferin Grove Park, “FRIDAY NIGHT SUPPER”,
www.dufferinpark.ca/(검색일: 2011. 9. 10).

〈다큐멘터리 필름〉

- 「미스워싱턴 - 국가는 폭력이다」 (감독: 김청승, 2011)
-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감독: 장호경, 2011)
- 「용산」 (감독: 문정현, 2010)
- 「두 개의 문」 (감독: 김일란·홍지유, 2012)
- 「남일당 이야기」 (감독: 오두희, 2010)

원고접수: 2012. 05. 05

원고수정: 2012. 06. 18

게재 확정: 2012. 06. 12

〈Abstract〉

Politics of Place-Making and Storytelling: Focusing on Documentary Films about Tenants' Struggle in Yongsan

Young-Ok Kim

Focusing on independent documentary films dealing with 'Yongsan tenants' struggle' produced after the tragic accidents on January 20th, 2009, this study discusses the politics of place-making, which include re/building community. Documentary films, especially independent ones, deliver important moments of reflection in regards to remembering history. They concern themselves with the relation between representer and represented, and question intensively and profoundly the im/possibility and the way (if possible) of remembering or documenting. In the case of Yongsan-related documentary films, we observe these characteristics more evident and varied.

In this study, documentary storytelling (aesthetics) and struggle for place (political philosophy) are the two axes of analysis. Using globalization as a metaphor, 'space' refers to the overarching structure of political economy with transnational capital and elite nomads in the center, while 'place' refers to the locale/s which/who are confronted with the effects of globalization. Thereby, place is

often essentialized and feminized.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implication of a gendered viewpoint in documentary films about Yongsan, and reviews possibilities of place-making that is not trapped in essentialization.

KEY WORDS: Yongsan tenants' struggle, independent documentary film, space, place/ness, storytelling